





송산축적소 다른 제철소 주변보다오염물질 농도 높아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회 밤



희생자 없는 에너지전환, 가능할까?

- ▶ 발행일 2023. 11.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유형민, 박희선, 조순형  
임수진, 김정진, 박은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세밀 / 신경림
- 4 지역환경이슈1  
| 송산축적소 다른 제철소 주변보다 오염물질 농도 높아
- 5 지역환경이슈2  
| 대호방조제에서 해변 환경정화활동 펼쳐
- 6 지역환경이슈3  
|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전환사회'
- 7 지역환경이슈4  
| 서울대 교수·학생 당진 찾아 환경현안지역 견학
- 8 지역환경이슈5  
| 희생자 없는 에너지전환, 가능할까?
- 10 지역환경이슈6  
| 에코생협 당진점 나눔장터 열려
- 11 충남환경이슈1  
| "산업폐기물 62%가 외부에서...도는 산단 인허가 취소하라"
- 12 충남환경이슈2  
| "충남 내 산단 태양광 보급률 미미, 확대 보급 건인해야"
- 14 충남환경이슈3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국 의원 발의로 추진'
- 15 전국환경이슈1  
| "2045년 인천 탄소중립 실현 위해 영흥화력 조기폐쇄해야"
- 16 전국환경이슈2  
| 일본 '오염수 2차 방류' 일주일 만에 삼중수소 4차례 검출
- 18 전국환경이슈3  
| 미 "한국 산 전기료는 보조금"...현대제철·동국제강 상계관세

- 19 10월 살림살이
- 20 10월 활동소식
- 22 11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 세밑

신 경 립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뒤돌아본다.  
 푸섣길의 가없음을 배우고  
 저녁노을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새소리의 기쁨을 비로소 안 한 해를,

비탈길을 터벅거리며 뒤돌아본다.  
 저물녘 내게 몰아쳐온 이 바람,  
 무엇인가, 송두리째 나를 흔들어 놓는  
 이 폭풍 이 바람은 무엇인가,  
 눈도 귀도 멀게 하는, 해도 달도  
 멎게 만드는 이것은 무엇인가.

자리에 누워 뒤돌아본다,  
 만나는 일의 설레임을 알고  
 마주 보는 일의 뜨거움을 알고  
 헤어지는 일의 아픔을 처음 안 한 해를,

꿈 속에서 다시 뒤돌아본다,  
 삶의 뜻을 또 새로 본 이 한 해를.

작가소개

**작가 신경림** (申康林, 1935~)

시인. 1936년 충청북도 중원에서 태어나 1960년 동국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이한지의 추천을 받아 1955~56년 <문학예술>에 시 <낮달><갈대><석상> 등이 발표되어 문단에 나왔다.

# 송산측정소 다른 제철소 주변보다 오염물질 농도 높아

## 국내 제철소 주변지역 대기질 비교 조사 결과

표2. 송산면, 중동, 대송면 측정소의 대기 중금속 2022년 평균 농도

측정소	Pb	Cd	Cr	Cu	Mn	Fe	Ni	As	Be	Al	Ca	Mg
송산면	0.0349	0.0008	0.0038	0.0183	0.0452	1.6194	0.0017	0.0051	0.0002	0.4067	0.7123	0.1575
중동	0.0075	0.0004	0.0029	0.0108	0.0257	0.6344	0.0035	0.0018	N.D.	0.3164	0.4603	0.1543
대송면	0.0151	0.0004	0.0034	0.0089	0.0609	0.5106	0.0033	0.0021	N.D.	0.1244	0.4396	0.1299

현대제철 주변 송산측정소가 포스코 포항 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주변 측정소에 비해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량과 관련성이 높아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9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3년간(2019~2021) 당진시, 포항시, 광양시 제철산업단지 인근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대기환경 자동측정망 자료를 비교·분석한 ‘국내 제철소 주변지역 대기질 비교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제철 주변 송산측정소에서 먼지(PM10, PM2.5),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일반 오염물질 뿐 아니라 구리, 납, 철 등 중금속도 포항과 광양 주변 다른 측정소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각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와 측정소 오염물질 농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현대제철 주변 송산측정소는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측정소 대기환경농도가 큰 관련성을 보인 반면 포항 대송측정소와 광양 중동측정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 곳 측정소의 주요 풍향이 북서풍인 상황에서 송산측정소는 풍하방향인데다 제철소와 450m로 가까운 반면 포항 대송측정소는 남서쪽 방향에 4km, 광양 중동측정소는 북서쪽 방향에 1.8km가 떨어져 있어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일차적으로 사업장의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동시에 대형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주요 인구 밀집지역과 이격하고 바람방향을 고려해 입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조사 결과를 보면 주 풍향이 모두 북서풍으로 포항과 광양의 경우 오염물질이 바다로 향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당진의 경우 내륙으로 확산돼 주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따라서 현대제철이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 사무국]

# 대호방조제에서 해변 환경정화활동 펼쳐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 4회차 진행



해변정화활동에 참가한 봉사자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10월 14일(토) 오전 대호방조제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해변 환경정화활동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 4회차 활동을 펼쳤다.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된 이날 해변 환경정화활동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46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화력발전소 회처리장부터 도비도 사이 대호방조제에서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됐으며 탐동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에코탑’ 10명의 학생들로 함께 참여했다.

이날 해변 환경정화활동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은 대호방조제 석축 사이에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와, 폐그물, 폐밭줄 등 폐어구와 함께 페트병, 낚시대, 비닐봉투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이 정화활동을 하는 모습

해변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송악읍 김중균씨는 “얼핏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방조제 돌 틈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놀랐다.”며 “오늘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해 쓰레기도 치우고 바다도 살리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글 : 사무국]

#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전환사회로’

2023년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 개최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행사에 함께한 분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창립 24주년을 맞아 10월 23일(월) 저녁 당진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전환사회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후원의 밤 행사는 80여명의 회원과 후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는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의 즐거운 밴드 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데 이어 2023년 활동영상 상영, 후원의 밤 참가자 소개, 공동의장단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의

연대사, 당진시 김영명 부시장과 조상연 당진시의원의 축사, 어기구 국회의원 축전 낭독, GS풍력발전 위진 상무의 축하 발언이 진행됐으며 마지막 순서로 이날 후원의 밤 주제를 담은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기념 촬영 이후에는 당진상공회의소 옆에 위치한 당진냉면갈비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함께 교류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의장단은 인사말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글 : 사무국]

# 서울대 교수·학생 당진 찾아 환경현안지역 견학

현대제철, 당진화력,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주요 사업장



현대제철 인근에서 서울대생들이 유종준 센터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당진화력 인근에서 서울대생들이 김정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와 학생 30여명이 지난 10월 7일 토요일 당진을 방문해 당진과 서산 대산지역의 주요 환경현안 사업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을 찾은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은 오전 10시 30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 도착해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유종준 센터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등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현대제철에 이어 석문면 교로리 당진에코 파워 태양광발전소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석탄화력발전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까지 8년간 투쟁의 역사를 청취했다.

이어 당진화력발전소 앞으로 이동해 당진

화력발전소 시설 현황과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 현황, 주민들의 피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당진 지역 주요 사업장을 둘러본 뒤 도비도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둘러보기 위해 대산읍 황금산에 올라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둘러보며 유종준 센터장과 김정진 사무국장으로부터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제철, 석탄발전,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주요 사업장이 밀집한 당진과 대산을 둘러본 서울대 학생들은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규모에 놀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환경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 사무국]

# 희생자 없는 에너지전환, 가능할까?

정의로운전환 사회적대화 워크숍 열려



당진시 정의로운전환 사회적대화 1차 워크숍이 11일 당진복지타운에서 열렸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재난이 아닌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른 지금, 당진시가 마련해야 할 에너지전환 정책은 무엇일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충남은 온실가스 배출량 1억 4444만톤으로, 5년 연속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라는 불명예에 성적표를 받았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획기적인 에너지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당진시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은 당진이 당면한 에너지전환 현안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사회적대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의로운전환이란 탈석탄 등 기존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갈등과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예상되는 직·간접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석탄 산업

재편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대체 고용, 재취업 교육, 생계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대한 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11일 당진복지타운에서 열린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시민사회·행정기관및 노동계 관계자, 지역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인사말 △강연 △질의응답 △그룹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은 “당진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 폐쇄할 예정이다”며 “민관이 합심해 전환에 성공한 독일과 미국, 캐나다의 여러 정책을 참고해 해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전환 사회적대화 1차 워크숍 참가자들이 그룹별로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또 “정의로운전환은 희생자 없는 전환을 뜻한다. 산업체와 노동자, 지역주민이 역할을 분담해 탈석탄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준비할 비전이다”며 “유사 사례로 국내 폐광지역이 있는데 특별법 제정과 각종 지원 정책이 이어졌으나 실효성이 부족했다. 당진은 산업 다양화, 노동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환경복원 및 재생, 에너지전환 추진기반 조성 5개 전략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부에서는 참석자를 3그룹(지역민, 노동계, 시민사회·행정)으로 나눠 토론회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정의로운전환 기금 활용 문제, 석탄 산업 노동자 지원 법안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당진시의 미래상 등을 논의하고, 정의로운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박미상 공동대표

는 “이번 워크숍은 정의로운전환의 첫걸음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토론을 통해 이해당사자를 발굴하고 의제 확장에 노력하겠다”며 “10월 중 그룹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11월 8일에는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회를 열어 정의로운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은 지속가능한 정의로운전환을 위해 10월 20일 이해당사자 1그룹 석문면 지역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11월 1일 이해당사자 2그룹 노동계 토론회 △10월 30일 이해당사자 3그룹 시민사회, 행정 토론회 △11월 8일 당진시 정의로운전환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 등의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사무국(010-2411-1899)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당진신문 일부 발췌]

## 에코생협 당진점 나눔장터 열려

수익금 전액 취약계층에게 기부 예정



지난 27일 에코생협 매장 주차장에서 나눔장터를 열었다.

에코생협 당진점이 지난 10월 27일(금) 매장 앞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눔장터를 열었다.

이날 나눔장터에서는 한달 전부터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 기증받은 옷, 가방, 신발, 생활용품, 장난감 등 재사용, 재활용품을 전시해 판매하고 곁절이, 목은지볶음, 멸치볶음, 시래기볶음 등 반찬도 만들어 함께 판매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춘이 조합원은 “제가 필요치 않은 물품들이 누군가의 가정에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금으로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

니 저도 뿌듯하고 즐겁다”며 매년 행사에 꼭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에코생협 당진점은 매년 10월 나눔장터를 열어 조합원들이 기증한 물품과 조합원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로 만든 반찬을 판매하고 있으며 나눔장터를 열어 판매한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후원물품으로 전달하고 있다. 올해 나눔장터에서도 100여 만원의 수익금이 모여 연말에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글:사무국]

## “산업폐기물 62%가 외부에서…도는 산단 인허가 취소하라”

31일 예산 조곡산단반대대책위·충남환경연합·농본 기자회견



충남 예산 조곡산단단지 반대대책위원회와 충남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31일 오후 예산군 신암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산폐장 확보를 위한 산단 조성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지역 주민·환경단체가 ‘대기업이 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산업폐기물처리장(산폐장)을 운영해 수익을 내려고 산단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산폐장을 확보하기 위한 산단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예산 조곡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와 충남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31일 오후 예산군 신암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는 대기업이 산폐장을 확보하려고 추진하는 산업단지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충남의 민간업체 산폐장에서 소각·매립하는 폐기물의 62.5%가 타지역에서 반입된 것이다. 폐기물을 처리해 얻는 막대한 순이익을 노리고 대기업이 폐기물 처리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실체 에스케이(SK) 그룹은 그린컴플렉스 회사 이름으로 서산, 아산, 예산, 당진, 공주에서 산폐장을 운영하려고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조곡산단은 에스케이 에코플랜트가 산단과 산폐장 설치에 나서면서 주민에게는 자원순환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당진 고대·부곡매립장은 업체가 부실해 지방자치단체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토양 오염 책임 등 사후관리를 떠안는 등 산폐장은 기업에는 막대한 이윤을 주지만 지역에는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큰 피해를 준다”고 우려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돼가고 있다. 산단 조성을 하면 법적으로 산폐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 관리 대책으로도 폐기물 관리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도민의 대책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도는 폐기물을 공공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때까지 현재 추진 중인 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 혹은 잠정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신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날 오후 예산 조곡산단 조성 관련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소림피스킨병 확산 예방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출처:한겨레]

# “충남 내 산업 태양광 보급률 미미, 확대 보급 건인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민포럼,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방안 개최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방안 시민포럼.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이 주관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민포럼’을 열었다.

RE100시대, 산업단지 태양광은 RE100산단 마중물로 수출기업 기본옵션의 역할로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 산업단지 태양광에 관심을 갖고 보급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정책진단이 나왔다.

기후위기충남행동, (사)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0월 31일, 충남지속협 회의실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방안을 주제로 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충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다섯 번의 연속 기획포럼을 계획했고, 이번 포럼은 세 번째 포럼으로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방안을 주제로 안장현 충남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은 계통연결의 수월성, 민원이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로 재생에너지 대량확산의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또 태양광 보급의 최대 걸림돌인 이격거리 규제 조례에서 자유로워 양질의 막대한 보급 공간에 신속한 설치로 다양한 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2030년 기준 현실적 보급 잠재량이 40GW(2030년 1KW/5㎡ 예상)로 깜짝 놀랄 잠재량”이라며 “충남의 탈석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데 산단태양광은 보급 목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토론에서 “서산은 많은 산단과 화학산업이 입지해 있어 서산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산단태양광은 그중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단 신재생의무화제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크지만,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서산시 산단태양광 확대를 위해 일조하겠다”고 했다.

박미상 당진시에너지센터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라 정부,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인데 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 보급은 2020년 4.6GW에서 2022년 3GW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재생에너지 전력부족으로 RE100 달성이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대구 등에서 RE100 추진, 산단 태양광 추진하는 걸 보면 광역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태양광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인다”며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 중 우선적으로 정부의 산단 신재생 의무화제도 시행과 지자체 행정 지원, 산단 관리기관의 사업지원 등 산단태양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환철 패커드코리아 노조위원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의 매력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기업주들은 움직일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ESG 경영 인증 우수기업 가산점 등 인센티브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계획 실행 단계에서의 노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산단 주민은 노동자다.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기업주에게 태양광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익공유의 형태로 운영,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때 사업 승계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성렬 기후위기충남행동 공동대표는 “산단 태양광 확대의 80%는 정부, 지자체, 기업의 역할이지만 충남 도내 산단 태양광 보급률은 너무 미미하다”며 “충남 시민사회가 먼저 논의하고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 충남도 산단 태양광 확대 보급을 견인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수상태양광 등 두 번의 시민포럼을 더 계획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국 의원 발의로 추진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25일 도의회 접수...”잘못된 인권개념 추종”  
 시민단체 반발...”발의 의원 25명 심판할 것”

<b>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b>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21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박정식, 홍성현, 김석근, 윤기형, 이연희, 이용국, 김옥수, 편삼범 정광섭, 이철수, 신영호, 김도훈, 이재운, 주진하, 안중혁, 양경모 김한철, 윤희신, 박미옥, 이상근, 이현숙, 이종화, 방한일, 김응규 박기영 의원 (25명)	

## 충남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에 발의자 의원 명단

충남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충남도의회에 지난 25일 의안 번호 제621호로 폐지안이 접수된 것.

앞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폐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 도의회가 이를 수리한 뒤 지난달 11일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그러자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다음 달 16일까지 정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대표 발의자는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등을 통해 조례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난 7월에는 ‘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폐지안에는 25명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신순욱 의원(비례)을 제외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5명도 발의에 참여했다. (중략)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인권시민단체는 즉

각 반발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조례 폐지 이유로 제시한 세 가지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헌법과 세계인권조약을 위반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이라며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교육연대도 “재판부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효력을 2회나 걸쳐 정지했다”며 “긴급 효력 정지를 무시한 채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비 종교관에 기대어 조례 폐지에 동의한 의원 25명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반드시 심판받게 할 것임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중략)

12대 도의회는 전체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다. 소관 상임위원 교육위 역시 국민의힘(전체 8석 중 6석) 의석 수가 많다.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하 생략)

[출처: 굿모닝충청 일부 발췌]

## “2045년 인천 탄소중립 실현 위해 영흥화력 조기폐쇄해야”

25일 ‘2030 영흥화력 조기폐쇄 촉구’ 행진 등 열려  
“인천시가 조기폐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촉구



지난 10월 25일 인천에서 열린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해 열린 캠페인에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참여했다.

인천시가 2045년 탄소중립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국내 탈석탄 네트워크 단체인 ‘석탄을 넘어서’는 25일 인천종합터미널과 인천시청 일대에서 전시와 도보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는 ▲2045년 인천 탄소중립 계획에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포함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전체 2030년 조기폐쇄 선언 ▲산업통상자원부에 조기폐쇄 적극 요구 ▲지역주민·노동자·시민단체·농민 등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20년 정부는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아예 없애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인천시는 이보다 5년 앞선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없이는 이 계획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약속했으나, 이후 정부의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해당 내용은 기본계획에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 뿐만 아니라, 1~6호기 전체를 2030년까지 조기폐쇄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2030년까지 모든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선언하고,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인천투데이]

## 일본 '오염수 2차 방류' 일주일 만에 삼중수소 4차례 검출

방수구로부터 200m 떨어진 곳  
1차 방류 한 달 동안은 '1차례'  
한국 정부는 "문제 없다" 입장  
도쿄전력 발표보다 느슨한 설명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 이후 일주일간 방류구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계치를 4차례나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방류 이후 한 달여 간 검출한계치를 단 한 차례만 초과했던 이전 추이에 비해 이례적인 현상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인근 바다에서 삼중수소가 일상적으로 검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전력이 15일 공개한 삼중수소 농도 속보치 분석 자료들을 보면, 방수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어 가장 가까운 'T-0-1A' 모니터링 지점에서는 2차 방류가 이뤄진 뒤인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약 일주일간 삼중수소 농도가 4차례 검출한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한계치는 측정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수치를 말하며, 측정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다. 배출된 삼중수소의 양이 검출한계치 미만일 때는 정확한 양이 측정되지 않는다. 검출한계치를 넘지 못하면 바다에서 삼중수소가 사실상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초과하면 검출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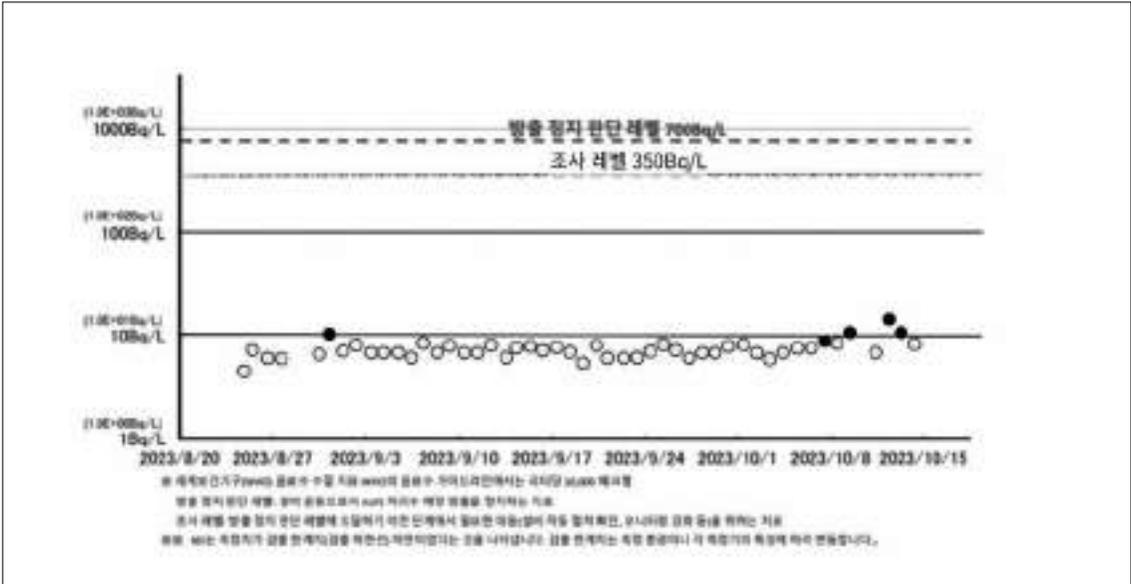
자료에 따르면 T-0-1A 지점에서는 2차 방류 이후 사흘만인 지난 8일 삼중수소 농도가



10월 3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서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2차 방류에 앞서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도쿄전력 제공

리터당 9.4벵크렐(Bq)로 관측돼 검출한계치를 넘겼으며 10일에는 11Bq, 13일에는 14Bq까지 높아졌다. 도쿄전력이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으나 그래프를 보면 14일에도 10Bq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한계치 이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8월24일 시작된 1차 해양 방류 때는 속보치 기준으로 검출한계치를 넘은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2차 방류 이전에는 지난 9월 1일에만 검출한계치를 한 차례(10Bq) 초과한 바 있다. 이 기록까지 합하면 바다에서 삼중



T-0-1A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속보치. 검은색으로 메워진 점이 검출한계치를 넘은 사례로, 지난 5일 이후 최근 까지 4차례 이어지고 있다. | 도쿄전력 ‘오염수포탈’ 자료

수소가 검출된 것은 이날까지 총 5차례다.

이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해류를 타고 퍼지기에,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다른 것이다. 다만 도쿄전력 측은 “해당 해역은 해류 흐름이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치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중수소가 검출됐어도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Bq에 크게 못 미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 이전까지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바다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빈번해진다면 인근 어민들이나 인접 국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삼중수소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생물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삼중수소의 변화에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6일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2차 방류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을 그대로 전했다. 삼중수소 농도와 관련해서는 “이상치 판단 기준보다 낮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출한계치 초과 여부 등을 밝히며 원인 분석을 내놓는 도쿄전력의 브리핑보다도 느슨한 설명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의 2차 방류 직후인 지난 6일에는 해양 방류에 사용되는 이송 펌프의 압력이 저하된 현상이 관측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전력 측은 펌프에 있는 금속제 필터에 이물질이 끼어있기 때문으로 보고 해당 필터를 청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방류 일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출처: 경향신문]

## 미 “한국 싼 전기료는 보조금”...현대제철·동국제강 상계관세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등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 정부가 한국의 싼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공식 판정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 상무부는 이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철강 업계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0.5%로 보고 있다. (중략)

앞서 미 정부는 2020년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는 상계관세를 물지 않기로 판결했다. 3년 만에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최근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결과로 해석된다. (중략)

일단 국내 전기요금이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

너지기구(IEA) 집계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95.6달러로 OECD 평균(115.5달러)에 못 미쳤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킬로와트시(kWh)당 전력도매가격은 2021년 94.34원에서 지난해 196.65원으로 100원 넘게 급등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9.6원 올리는 데 그쳤다. (중략)

낮은 전기요금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확대되고 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은 작다. 선거를 앞둔 여당에서 여론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실제 10월 중순임에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시기·폭은 물론, 인상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력 생태계가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상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10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7,011,884	인건비	급여	4,600,000
회 비	개인회비	5,850,000		퇴직적립금	415,280
	법인회비	1,372,000		사회보험료	529,290
	계	7,222,000		계	5,544,57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6,383,080	경상비	복리후생비	48,000
	법인후원	21,200,000		세금과공과금	93,490
	계	27,583,080		소모품비	20,000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323,090
	계	-		기타운영비	113,12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597,70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26,100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1,875,440
	계	-		생활환경사업	-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조직 회원사업	876,000
	계	-		모금사업	1,264,190
기타수입	기타수입	-		연대사업	402,103
	계	-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		계	4,443,833
	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
차입금	차입금	-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31,230,861
				계	31,230,861
월수입 총계		34,805,080	월지출 총계		10,586,103
수입 합계		41,816,964	지출 합계		41,816,964



### 2023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참가

10월 5일 예산 스포라스리움에서 2023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 워크숍' 토론회에 황성렬 전의장이 참여했습니다.



### 태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적 대화

10월 5일 태안문화원에서 '태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 김정진 사무국장이 참여했습니다.



### 지구방위대 환경박람회 체험 부스 운영

10월 7일 삽교천 부근에서 열린 지구방위대 환경박람회에서 비누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 탐동초등학교 학생 환경교육

10월 12일 탐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대해 박은정 사무차장이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민포럼3 참가

10월 18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민포럼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방안과 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충남 정의로운전환기본 조례 토론회 참가

10월 19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2023 충남 정의로운전환포럼 '충남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이행 현황 및 과제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01 일반사업

- ❖ 11/01 정의로운전환 당진사회적대화 노동부문 2차 토론 - 석문문화스포츠센터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11/02 가스발전 대응전략 회의 - 서울 헤이그라운드 성수점
- ❖ 11/03 정의로운전환 서천사회적대화 토론회 - 서천 서면사무소 에코생협 당진점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11/06 재생에너지 현장 선진지 견학 - 군산 등
- ❖ 11/0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환경분과 회의 - 복지타운 에너지기본권 관련 세미나 - 온라인
- ❖ 11/08 액티브아시아 기후활동가 연수 관련 간담회 - 사무실
- ❖ 11/09~11/10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활동가대회 - 대전 KT연수원 충남 공익활동가대회 - 서산 폰타나리조트
- ❖ 11/10~11/12 사무국처장단 조직논의TF 회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 ❖ 11/14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대전NGO센터 충남시민재단 10주년 기념식 - 온양관광호텔
- ❖ 11/15 산업폐기물 정책 국회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민선 8기 당진시 에너지정책 공약 이행점검 집담회 - 당진공익활동지원센터
- ❖ 11/16~11/17 철강산업도시 상생포럼 - 포항 효자아트홀
- ❖ 11/20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천안 신라스테이
- ❖ 11/21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단 회의 - 미정
- ❖ 11/22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단 회의 - 미정
- ❖ 11/23 정의로운전환 당진사회적대화 3차 종합토론회 - 당진시청
- ❖ 11/29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1/28(화) 11시30분

##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강신영(원당동), 조희두(읍내동)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신영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병구 김병민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종현 김주석 김지환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림 김현웅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재근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선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지예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자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순영 이승호 이영길 이영수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 월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종학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해슬 이해정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병준 정분환 정봉식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종한 정중섭 정찬관 정치용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순형 조용재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종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수빈 최오상 최완택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태석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흥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권섭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글로벌천막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 11월 8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 당진시 정의로운전환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부터 당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에게 당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대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전반의 이해를 돕는 종합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당진시 |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 (사)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생명을 위한 초록변화를 만들어 갈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멈추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당진환경연합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지키는 회원이 되어주세요.



### 참여방법

- 1 전화 041-355-7661 전화주세요.
- 2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dj.ekfem.or.kr)
- 3 주변의 지인을 소개 해 주세요.
- 4 전화주시면 회원가입신청서를 보내 드립니다.
- 5 소개시켜 주신 회원님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